

안전성 선호를 고려한 1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 분석*

김지훈** · 임성수***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nsideration of Safety Preference

Kim, Ji-Hoon · Lim, Sung-Soo

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food companies are releasing small packaging and small-capacity products regardless of product line such as beverages, fresh foods, and home snacks, and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also changing. Meanwhile, as a series of accidents related to food safety occurred during cost-effective consumption pursuing price-performance, more consumers wanted to choose products that have been proven safe even with higher money due to food safety anxiety. Considering the concept of 'safety' of food, this study by using the 'ordered probit model' empiricall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safety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between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Summarizing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women rather than men, and elderly households among young and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higher demand for food safety. The results of marginal effects considering food safety variables show that respondents with low frequency of delivery and take-out use are considering food safety more, an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onsidering safety more than multi-person households. In the future,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single-person and elderly households, and women's economic activities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the growing home convenience food market needs marketing strategies to secure and emphasize food safety, such as sterilizing treatment technology for hygiene and safe container development from environmental hormones, and needs a lot of support and attention to meet changes in food culture trends and demographic structure.

Key words : *food consumption behavior, food safety, ordered probit model, single-person household*

* 이 논문은 2021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식품경제학과 석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부교수(sslim07@kku.ac.kr)

I. 서 론

최근 1인가구¹⁾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 트렌드가 재편되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664만 가구로 추산되며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고(Statistics Korea, 2020),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7년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또한 1인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은 15.5%로, 다인 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 비중인 13.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0).

한국의 가구형태는 소득수준 저하와 여성고용의 확대, 초혼 연령 상승, 이혼율 증가, 결혼 가치관 변화, 고령화, 남녀 평균수명 차이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 2010년 23.9%, 2020년 3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그리고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7년 1인가구의 비중은 2017년 대비 8.8% 증가한 37.3%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포미(FOR ME)²⁾족, 율로(YOLO)³⁾족 등의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식품소비 패턴과 주거형태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해진 가구의 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식품의 종류와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형태는 식품소비행태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Kim, 2008).

포미(FOR ME)족, 율로(YOLO)족, 1코노미(1+Economy)⁴⁾와 같이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나 성능 이전에 ‘내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지’라는 주관적 만족감이 또 다른 소비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 시 발생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로 인해 보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⁵⁾ 이에 1인가구의 증가 현상과 안전한 식품구매가 서로 연관성

1) 통계청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2) 포미(FOR ME)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2020).

3) ‘인생은 한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만 따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2020).

4) 1코노미란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저서 ‘트렌드코리아2017’에서 ‘1인’과 ‘이코노미(경제)’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미치는 새로운 경제 유형을 일컫는다. 네이버 지식백과(2020).

5) 2014년 발생한 대장균 시리얼 사건, 2015년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인가구의 식품소비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Kang과 Lee (2020)는 1인가구의 연령대별 식품소비행태 및 농식품 소비자 역량지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소비자 역량지수를 농식품 구매역량, 식생활 역량, 소비자 시민역량으로 구분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인가구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식품구매 빈도, 간편식 구매빈도, 외식빈도,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식품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전통 식생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Jin과 Oh (2016)는 AIDS 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식품소비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가구의 경우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지출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Park과 You (2016)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패턴에 따른 식품소비행태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식생활 만족도의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Kim (2020)은 1인가구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 식품구매빈도, 간편식 구매빈도, 외식 빈도,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높고,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품정보 활용능력과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식품 안전성을 고려한 소비행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Yu(2015)는 식품소비시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을 주요 변수로 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위험지각에 비해 안전행동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위험지각과 안전행동의 수준에 따라 무관심집단, 대비집단, 자포자기집단, 위험반응집단의 네 집단으로 소비자유형이 구분되었다. 또한 안전행동 수준이 강한 집단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한 식품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Han과 Yang (2019)은 살충제 계란 사고가 계란의 가격 및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계란의 가격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대형마트와 친환경 전문매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살충제 계란 사고의 영향은 대형마트의 경우 사고 이전의 가격과 매출액을 회복하는데 6주의 시간이 걸렸으나, 친환경 전문매장의 경우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친환경 전문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현재 이용하는 매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

2018년 생수,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사건, 동년 6월 커피 유해화학물질사건 등 거의 매년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을 내리고 있다.

Jin (2018)은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포함한 외부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집밥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정 결과, 외부음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가정식 식사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구나 전업주부 가구에서는 외부음식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가정식 식사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가구의 경우 외부음식의 안전 우려가 크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쉽게 가정식 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었다. Jang과 Park (2006)은 2005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과 함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행태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구성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가족의 건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가족 구성원의 70%를 이루는 3~4인 가족이 이력 추적정보, 원재료표시, 유해요소에 있어 부정적 지각을 보임에 따라 부부+자녀(3~4인) 형태의 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1인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구유형 또는 연령별로 특정 식품소비행태를 비교 분석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안전성을 고려한 소비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Jang과 Park (2006)의 연구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한 식품소비행태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자세히 연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소비자 가구원 수에 있어 3~4인 가족이 70%를 차지하며 대다수를 이루는 실정이었다. 최근 가구원 수별 1인가구의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구원 수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행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1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에 있어 안전성 측면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 7차 원시자료(2019년)를 사용하여 식품의 안전성 선호를 고려한 1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를 순위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식품산업이 부합해나갈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1인가구의 일반적인 식품소비 특성을 분석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식품 구매 시 안전성 선호를 고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가구원별로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1인가구의 식품소비 특성 및 식품안전성 관련 동향

1.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 사업은 2013년 5월 실시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된다.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의 경제 및 사회·인구여건 변화의 영향 등으로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식품소비의 종합적인 수요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74세 미만인 가구 내 식품 주 구매자(주부)와 만 13세 이상~만 74세 미만인 가구원(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유사패널(quasi-panel)⁶⁾ 형태로 지속적 표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모집단 현황의 파악뿐만 아니라 시점 간 변화인 트렌드 분석의 추정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추출된 두 개(시점 및 집락종류별) 표본을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사방법은 식자재 및 식품 주 구매자는 대면 면접조사, 가구원은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식품으로는 5개의 식품군을 포함해 인터넷 구매, 기능성식품, 친환경식품을 구분하여 조사한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2. 1인가구의 식품소비 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인가구의 주요 소비 특성으로 인터넷 구매 증가, 외식·테이크아웃 선호 등 편의성 추구 성향의 강화로 밝혔으나, 안전성 의식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 인터넷 구매와 외식 및 테이크아웃 현황

2019년도 식품소비행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6% 수준이며 이들은 전체 식품 구입에서 평균 20.4%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 비중은 7.8%p 증가하였으며, ‘2주일에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 비중은 4.3%p 증가했다(Fig. 1).

6) 식품소비행태조사의 기본적 표본 운영은 표본 중복을 포함한 반복조사(repeated surveys)로 패널조사(panel survey)와는 상이하다. 후자의 경우, 기존 응답 가구 및 가구원들의 사망, 거처 이주, 가족 분가 및 재결합 등의 변경내역을 포함한 개체별 추적조사(follow-up survey)는 물론 추적조사에 따른 개체 특성이 반영된 패널가중치(panel weight) 등도 산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사패널이란 앞서 기술한 패널조사 분석을 위한 추적 및 패널 가중치 산출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들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고려한 반복조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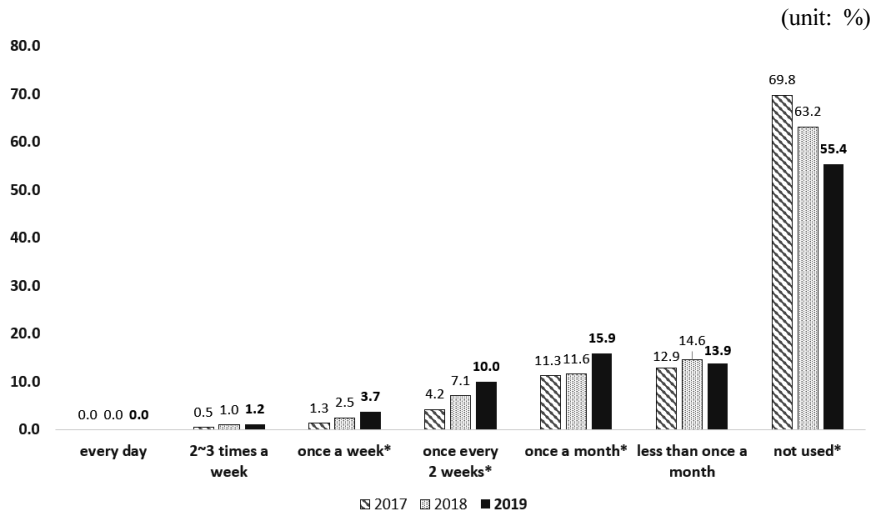


Fig. 1. The cycle of purchasing food online.

Note: Single asterisks (*)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2019 compared to 2018 at the 95% confidence level.

Table 1. Reasons for return/refund of food purchased online

(Response target: households that have experienced return/refund after purchasing food online, Unit: %)

Classification Member	Expiration date has passed	Packaging is damaged	Ordered wrong	Other products were delivered	Delivered late	Number of respondents
1	4.9	56.8	17.6	29.7	0.7	33
2	0.0	27.3	15.8	32.7	27.7	45
3	9.0	27.6	40.9	49.5	22.6	34
4	11.9	20.8	13.5	24.5	6.2	21
More than 5	47.3	0.0	0.0	0.0	30.9	5

Classification Member	Product description is different	Simple change of mind	Able to buy it at a lower price	Etc.	Number of respondents
1	30.2	12.4	7.4	0.0	33
2	33.0	7.8	0.6	0.0	45
3	12.1	8.8	3.9	0.0	34
4	15.0	31.6	5.7	0.0	21
More than 5	35.7	15.1	32.1	0.0	5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이 중 1인가구는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판매 사이트의 신뢰도와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

불 사유에서 2인 이상의 가구와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포장 손상 등의 불량률 중요히 여기며 지연배송은 거의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인가구의 외식과 테이크아웃 현황

1인가구의 외식 빈도는 78.9%로 전체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 가구의 외식 비중(89.7%)이 읍·면 지역(7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세대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과 세대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와 40대는 각각 94.1%와 94.2%로 높고 70대 이상인 경우 57.3%로 가장 낮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외식 비중이 53.4%였으나 500만 원대와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각각 95.4%와 94.4%였다. 또한 1인가구의 1회 평균 외식비용은 17,796원으로, 이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Table 2. Comparison of eating out with household members by household type

(Unit: %, person)

Classification		Eat out	Not eat out	Number of respondents
Administrative district	-Dong	89.7	10.3	2,587
	-Eup · -Myeon	77.6	22.4	75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ingle-person households	78.9	21.1	816
	Two-person households	87.2	12.8	1,267
	Three-person households	92.9	7.1	687
	Four-person households	94.6	5.4	498
	Five or more person households	82.4	17.6	69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Under 30s	94.1	5.9	535
	40s	94.2	5.8	786
	50s	90.4	9.6	975
	60s	75.3	24.7	752
	70s	57.3	42.7	289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53.4	46.6	257
	Around 1 million won	71.0	29.0	463
	Around 2 million won	85.5	14.5	621
	Around 3 million won	93.5	6.5	608
	Around 4 million won	91.7	8.3	546
	Around 5 million won	95.4	4.6	499
	More than 6 million won	94.4	5.6	343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분식점 및 김밥전문점 이용 비중이 11.5%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는 세대주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배달만 이용’하는 가구는 대체로 가구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증가하며, ‘배달·테이크아웃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가구’ 비중은 읍·면 지역(38.5%), 1인 가구와 2인 가구(36.5%, 33.1%), 세대주 연령 60대(44.4%)와 70대(71.2%),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66.4%)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의 경우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인가구에 비해 크게 높았다(Table 3). 또한 1인 가구에서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비싼 가격(30.6%), 화학조미료 사용(18.1%), 오랜 대기시간(14.2%)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delivery and take-out usage by household type

(Unit: %, person)

Classification		Use both delivery · take-out	Delivery only	Take-out only	Do not use	Number of respondents
Administrative district	-Dong	44.2	27.6	4.0	24.2	2,587
	-Eup · -Myeon	33.8	24.9	2.8	38.5	75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ingle-person households	34.5	21.1	7.9	36.5	816
	Two-person households	39.1	25.0	2.9	33.1	1,267
	Three-person households	51.4	29.4	2.1	17.1	687
	Four-person households	47.6	32.9	2.0	17.4	498
	Five or more person households	39.7	43.2	0.1	17.0	69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Under 30s	53.7	25.8	4.9	15.5	535
	40s	54.2	28.2	2.3	15.3	786
	50s	40.9	30.1	3.2	25.9	975
	60s	22.8	27.2	5.6	44.4	752
	70s	10.9	15.5	2.4	71.2	289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17.5	14.0	2.1	66.4	257
	Around 1 million won	28.6	20.3	5.3	45.9	463
	Around 2 million won	35.6	25.4	7.7	31.4	621
	Around 3 million won	41.9	30.4	2.6	25.2	608
	Around 4 million won	47.4	28.9	3.2	20.6	546
	Around 5 million won	51.7	30.2	1.8	16.3	499
	More than 6 million won	54.6	29.7	3.1	12.6	343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3.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식품 안전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경우를 100점으로 할 때, 국내 성인 가구원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체감도는 평균 76.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80점 미만’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80~100점’이 48.6%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식품 안전성 체감도가 평균 76.9점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73.4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교육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성인 가구원은 식품안전성 체감도가 평균 76.8점인 반면, 중졸 이하는 7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인 경우 7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 원대는 75.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food safety sensitivity evaluation by adult characteristics

(Unit: point, person)

Classification		Aver.	Number of respondents
Total		76.3	6,176
Administrative district	-Dong	76.9	4,892
	-Eup·-Myeon	73.4	1,284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75.6	924
	High school graduate	76.0	2,773
	College graduate or higher	76.8	2,479
Gender	Male	76.2	2,783
	Female	76.4	3,393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76.1	317
	Around 1 million won	75.0	673
	Around 2 million won	76.0	945
	Around 3 million won	77.0	1,102
	Around 4 million won	75.4	1,161
	Around 5 million won	76.0	1,126
	More than 6 million won	77.9	852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식품 안전성 제고에 대한 지불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가구원 6,176명의 절반 이상(61.5%)은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인 가구원의 6.5%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성인 가구원은 평균 3.55점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지불의향에 대한 척도 평균이 3.61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58점) 읍·면 지역(3.43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70대가 3.42점으로 30대(3.65점)와 40대(3.61점)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Table 5. Comparison of willingness to pay safe food by adult characteristics

(Unit: point, person)

Classification		Scale aver.	Number of respondents
Total		3.55	6,176
Region	Capital area	3.61	1,801
	Chungcheong area	3.34	1,001
	Honam area	3.55	1,138
	Daekyung area	3.54	818
	Dongnam area	3.62	1,173
	Gangwon area	3.11	245
Administrative district	-Dong	3.58	4,892
	-Eup·-Myeon	3.43	1,284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3.42	924
	High school graduate	3.51	2,773
	College graduate or higher	3.63	2,479
Age	20s	3.46	753
	30s	3.65	822
	40s	3.61	1,417
	50s	3.59	1,629
	60s	3.48	1,203
	70s	3.42	352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3.44	317
	Around 1 million won	3.51	673
	Around 2 million won	3.52	945
	Around 3 million won	3.61	1,102
	Around 4 million won	3.56	1,161
	Around 5 million won	3.65	1,126
	More than 6 million won	3.47	852

Notes: The scale average is the average value converted into not at all=1, no=2, normal=3, yes=4, and very yes=5.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9).

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지불 의향에 대한 척도 평균이 3.42점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3.63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한 식품을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컸다.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성인가구원(3.44점)에 비해 500만 원대 규모의 가구원(3.65점)이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지불의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20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 바이오생약, 의료기기 등의 분야별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Ⅲ. 연구모형 및 분석 결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매 만족도의 기준에서 가격보다도 식품 안전성을 선호하는 경우 소득, 성별, 연령,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용 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의 요인별로 1인 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안전성 선호를 고려하는 이유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실시한 식품소비행태조사 7차 자료 중 주 구입자 대상 설문결과 3,337건을 표본으로 정해 순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선호 서열척도이거나 순서화된 이산변수일 경우, 그 값은 숫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형회귀 모형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순서 선택모형(ordered choice model)인 순위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순서 선택모형에는 순위로짓모형과 순위프로빗모형이 있으며, 오차항의 확률분포형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순위프로빗모형은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성 선호(5점 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 산업 기술에 대응하여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2020년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면, 2차 관리계획은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모형을 설정한다(Greene, 2012).

$$y^* = x'\beta + \epsilon \quad (1)$$

y^* 는 전년 대비 식품소비지출액 변화도를 나타내는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 x 는 설명 변수 벡터이다. J 개의 응답 가능한 순위가 있을 때, 관측할 수 없는 변수 y^* 와 관측할 수 있는 변수 y 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순위프로빗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y &= 0 \text{ if } y^* \leq 0 \\ &= 1 \text{ if } 0 < y^* \leq \mu_1 \\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dots \\ &= J \text{ if } \mu_{J-1} \leq y^* \end{aligned} \quad (2)$$

μ 들은 β 와 함께 추정될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한계값을 의미한다. 이때, 오차 ϵ 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위 식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함수 Φ 는 표준 정규 확률밀도함수이다.

$$\begin{aligned} \text{Prob}(y = 0 \mid x) &= \Phi(-x'\beta), \\ \text{Prob}(y = 1 \mid x) &= \Phi(\mu_1 - x'\beta) - \Phi(-x'\beta), \\ \text{Prob}(y = 2 \mid x) &= \Phi(\mu_2 - x'\beta) - \Phi(\mu_1 - x'\beta), \\ &\dots \\ \text{Prob}(y = J \mid x) &= 1 - \Phi(\mu_{J-1} - x'\beta). \\ 0 < \mu_1 < \mu_2 < \dots < \mu_{j-1} \end{aligned} \quad (3)$$

$\text{Pr}(y_i = j)$ 을 i 번째 응답자가 j 를 가질 확률이라 하고, y_i 는 i 번째 응답자가 j 일 때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 다음의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가 최대가 되는 β 값을 추정함으로써 최대우도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L = \prod_{i=1}^n \prod_{j=1}^J \text{Pr}(y_i = j) \quad (4)$$

그리고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계수 값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계수 값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계수 값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만을 결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해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본다. 한계효과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특정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등을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 구매자를 대상으로 식품소비행태조사 항목 중 ‘식품 선택 시 가격이나 맛보다도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맛보다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월간 소득이 3~4백만 원 이상부터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식품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는 무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1인가구일수록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성별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경우에서 여성이 가정 내 살림을 도맡아 하며, 식품 주구입자로서 가족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인 20대 그룹은 기준집단인 ‘만70세~74세’에 비해 식품 구매 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그룹은 사회로 진출하며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기준 한국의 초산 연령이 32.3세인 점을 보면(Statistics Korea, 2020), 결혼과 출산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게 됨에 따라 30대 그룹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그룹은 기준집단인 70대에 비해 식품안전성을 보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50대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시작하는 연령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대의 경우 대표적 성인병인 고혈압이 전체 50대의 20.6%, 당뇨병이 9.9%로 40대와 비교해 각각 2.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1).

넷째,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식품소비에 있어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는 응답자일수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2019년 데이터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현상으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202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할 경우 보다 뚜렷한 현상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ordered probit model

Variable		Coefficient	S. E.	p-value
Income	Less than 1 million	-0.380	0.111	0.001***
	1~2 million	-0.270	0.087	0.002***
	2~3 million	-0.139	0.079	0.079*
	3~4 million	-0.124	0.076	0.103
	4~5 million	-0.063	0.076	0.403
	5~6 million	-0.075	0.077	0.327
Gender	Female	0.152	0.060	0.011**
Age	19~29	-0.118	0.211	0.575
	30~39	0.326	0.130	0.012**
	40~49	0.205	0.122	0.093*
	50~59	0.262	0.120	0.029**
	60~69	0.073	0.120	0.545
Frequency of delivery/ take-out	4~5 times a week	-0.593	0.829	0.474
	2~3 times a week	-0.945	0.774	0.222
	Once a week	-0.969	0.770	0.209
	Once every 2 weeks	-0.862	0.771	0.263
	Once a month	-0.693	0.771	0.369
	Once every 2~3 months	-1.139	0.784	0.146
	Rarely	-0.645	0.780	0.408
	Not used	-0.783	0.770	0.309
Interested in health	Not interest at all	0.307	1.086	0.777
	Not interested	-1.035	0.243	0.000***
	Normal	-0.546	0.095	0.000***
	Interested	-0.158	0.089	0.076*
Household type	Single-person	-0.486	0.151	0.001***
Age by household type (Interaction dummy)	19~29, Single-person	-0.127	0.261	0.628
	30~39, Single-person	-0.355	0.191	0.063*
	40~49, Single-person	-0.444	0.190	0.020**
	50~59, Single-person	-0.493	0.181	0.006***
	60~69, Single-person	-0.293	0.172	0.090*
Sample size(n)		3,337		
Log Likelihood		-3800.6187		
Chi-square		185.86		
Pseudo R ²		0.0239		

Note: 1. t-Statistics are significant in ***1%, **5%, and *10% confidence intervals.

2. The reference variables are more than 6 million won in income dummy, male gender dummy, age dummy 70-74 years old, everyday to the dummy of the frequency of delivery and take-out use, very interested in health dummy, multi-person in household type dummy, and 70~74 years old/single-person interaction dummy.

다섯째, 건강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식품안전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안전 여부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의 설문대상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품 주 구매자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응답자가 식품안전성을 보다 중요시 고려한다는 결과는 일반적인 직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1인가구 여부가 식품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식품안전성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는 대부분의 식품류 조달 빈도가 낮고 다인 가구에 비해 식생활 불안정단계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권장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REI, 2019).

마지막으로, 동일한 연령대에서 1인가구와 다인 가구 간의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안전성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안전성 고려 정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장년층으로 대표되는 4~50대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을 비교한 연구(Lee and Cho, 2019)에서도, 흡연과 음주 등 객관적인 건강행태는 확연히 다인 가구의 중년보다 1인가구에서 취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의 1인가구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장년 시절 건강관리에 소홀한 이후 건강 악화와 질병 발생 등으로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수별 한계효과는 Table 7과 같다.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기술하였다. 먼저 소득 측면의 한계효과를 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비해 식품 구매 시 가격이나 맛보다도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확률이 7.6%가량 낮았고, 소득이 100만 원대인 가구는 5.4% 낮으며, 소득이 200만 원대, 300만 원대인 가구는 각각 2.8%,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 안전성을 고려할 확률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소득이 적은 가구 역시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은 아니다. 성별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가격이나 맛보다 안전성을 매우 높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70대에 비해 안전성을 매우 높게 고려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6.5% 높았으며, 40대는 4.1%, 50대는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밀레니엄 세대로써 과거 세대에 비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가치의 비중이 크며 근로소득의 증대, 출산과 육아 등 환경의 변화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이어져 식품안전성

8) 1인가구는 대부분의 식품류 조달 빈도가 낮고, 다인 가구에 비해 식생활 불안정 단계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권장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Kang and Lee, 2020).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응답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응답자에 비해 가격이나 맛보다 안전성을 매우 높게 고려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20.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득, 성별, 연령 변수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기준변수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수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응답자일수록 식품 구매 시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한편,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맛보다 안전성을 매우 높게 고려한다고 선택할 확률이 9.7% 낮았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가구 구성원을 함께 고려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30대의 1인가구는 70대의 다인 가구에 비해 가격이나 맛보다 안전성을 매우 높게 고려한다고 선택할 확률이 7.1% 낮았으며, 40대의 1인가구는 8.9%, 50대의 1인가구는 9.9%, 60대의 1인가구는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1인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변수인 70대보다 안전한

Table 7. The marginal effect of the food safety variable according to household type

Variable		Not at all	Dis-consider	Neutral	Consider	Very consider
Income	Less than 1 million	0.001	0.043	0.100	-0.069	-0.076
	1~2 million	0.001	0.031	0.071	-0.049	-0.054
	2~3 million	0.000	0.016	0.037	-0.025	-0.028
	3~4 million	0.000	0.014	0.033	-0.022	-0.025
Gender	Female	-0.000	-0.017	-0.040	0.028	0.030
Age	30~39	-0.001	-0.037	-0.086	0.059	0.065
	40~49	-0.001	-0.024	-0.054	0.037	0.041
	50~59	-0.001	-0.030	-0.069	0.048	0.052
Interested in health	Not interested	0.003	0.119	0.273	-0.188	-0.207
	Normal	0.002	0.063	0.144	-0.099	-0.109
	Interested	0.001	0.018	0.042	-0.029	-0.032
Household type	Single-person	0.001	0.056	0.128	-0.088	-0.097
Age by Family	30~39, Single-person	0.001	0.041	0.094	-0.064	-0.071
	40~49, Single-person	0.001	0.051	0.117	-0.081	-0.089
	50~59, Single-person	0.001	0.057	0.130	-0.090	-0.099
	60~69, Single-person	0.001	0.034	0.077	-0.053	-0.059

Note: 1. As a result of ordered probit model analysis, insignificant variables do not calculate marginal effects.
 2. The reference variables are more than 6 million won in income dummy, male gender dummy, age dummy 70-74 years old, everyday to the dummy of the frequency of delivery and take-out use, very interested in health dummy, multi-person in family dummy, and 70~74 years old/single-person interaction dummy.

식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의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들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범국가적인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30대가 식품 구매 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식품 선택 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식품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거환경 등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품의 안전성 개념을 고려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소비 트렌드인 1인가구가 식품을 구매할 경우의 안전성 고려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7차 식품소비행태조사(2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식품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맛보다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간 소득이 4백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무차별하였다. 둘째, 성별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 그룹에서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출산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0대와 50대가 기준집단인 70대에 비해 식품 안전성 고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보다는 노인 세대의 영양과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용 빈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식품 안전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안전 여부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식품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가 안전성을 더욱 고려한다는 결과는 타당하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1인가구와 다인 가구 간의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식품구매 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1인가구의 안전성 선호가 다인 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소득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식품구매 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품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식품 섭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영유아를 주로 양육하는 세대인 30대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건강의 적신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60대인 점을 보았을 때, 국민 건강도 증진을 위해서는 유아·청소년기부터 건강관리와 식품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인 질병들은 미리 알려진 위험요인들이 있어 예방이 가능하고, 발병해도 일찍 진단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인가구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식품 선택 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현상에 비추어 이들의 건강관리와 영양 측면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범국가적인 보건안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의 인구 구조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경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제 사회에 갓 진입한 20~30대 젊은 층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살충제 계란과 살충제에 감염된 소시지, 유해물질 생리대 등 연달아 터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의 소비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교육 이수 시 지역 농산물 구매 상품권 또는 식품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식품업체는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패키지나 구독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농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며 정책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푸드스탬프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1인가구에게 식품구입용 바우처(Food Stamp Coupon)나, 전자지불카드를 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보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 예방 등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도 식문화 트렌드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식품산업이 부합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Submitted, September. 18, 2021; Revised, January. 24, 2022; Accepted, February. 5, 2022]

References

1. Estimated Households-National Statistics by Age/Family Type/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the Census. 2019. Statistics Korea.
2.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Basic Analysis Report. 2019.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Results Presentation Contest Collection. 202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 Greene, W. H. 2012.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5. Han, B. and S. B. Yang. 2019. The Effects of Food Safety Accident on the Consumption of Eggs: Focusing on the Pesticide-related Accident. *Korean J. Organic Agriculture*. 27(1): 17-32.
6. Household Trend Survey. 2020. Statistics Korea.
7. Jang, D. G. and H. J. Park. 2006. Analysis for consumers food purchase behavior with respect to agrifood safet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3(3): 563-582.
8. Jeong, B. M. and N. Y. Kang. 2019.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Nutrients Intake, Dietary Behaviors and Food Intake Frequency of Single- and No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4-2016.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4: 1-17.
9. Jeon, S. M. 2017. The Influence of Consumer Anxiety about Food Hazards on Food Label Use and Safe Food Purchase: Focusing on the Difference Test by Knowledge Level of Safety Labeling.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20: 87-108.
10. Jin, H. J. 2018. For the Relation between Safety Concern for Food in Restaurants or Purchased Outside and Frequency of Eating Home Food: Focused on Household Type.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49: 1-21.
11. Jin, H. J. and H. Oh. 2016. Comparison of Elasticities in Food Consumption between Single Household and General Household Using an AIDS Model. *Consumer Problem Research*. 47(3): 169-189.
12. Kang, H. J. and B. H. Lee. 2020. Analysis of Determinants of Delivery and Take-out Food Consump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7(3): 471-494.
13. Kim, M. J. 2020. Comparis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od Consumption Behavior and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Index by Age Group.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4. Kim, S. Y. 2008. Decomposition Analysis of Changes in Consumers'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Rural Economics*. 49: 56-82.
 15. Lee, K. B., D. H. Lee, and K. S. Oh. 2020. Food Safety Standards, Keeping Pace with Future Food Change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Press release.
 16. Lee, H. N. and Y. T. Cho. 2019.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Disease Prevalence between Middle Aged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Member Households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3): 380-407.
 17. Park, J. H. and S. Y. You. 2016. Analysis on Food Consumption Behavior and Dietary Satisfaction According to Household Typ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7(2): 103-138.
 18. Statistical Yearbook of Food and Drugs 22. 202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 Stat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Census and Type of Residence. 2019. Statistics Korea.
 20. The Frequent disease statistics. 202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1. Yu, H. J. 2015. Classification of Consumer Type according to the Tendency toward Safety and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Demands for Food Policies. *Crisisonomy*. 11: 179-199.